

자력갱생의 첫 신호탄

2016년 5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충성의 로력적선물로 제작한 기계설비전시장을 찾으시였다.

전시장에는 한두 부문도 아니고 전력, 석탄, 전자공업과 철도운수, 룡해운부문, 농업과 국토환경부문 등 인민경제 많은 부문들에서 마련한 수많은 기계설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마련한 수많은 기계설비들을 보시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중에서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높이 평가하신것은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 새형의 80hp트랙토르였다.

우리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지난 세기 50년대의 첫 《천리마》호 트랙토르를 생산한 전세대들의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우리 식의 새형의 트랙토르를 제작해낸것이였다.

100%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 새형의 트랙토르는 단순한 룡전기재가 아니라 경제강국의 지름길을 힘차게 열어제끼는 자력갱생의 무쇠철마였다.

이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새형의 트랙토르를 미덥게 바라보시며 미남자처럼 잘 생겼다고, 정말 멋있다고, 사회주의수호전의 철마이라고 하시며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80hp트랙토르는 자력갱생의 첫 신호탄이나 같다. 우리는 우리 식으로 새형의 트랙토르를 만들어냄으로써 자력갱생의 구호를 높이 들고나가는데서 큰걸음을 내짚었다.